

블랑팡(Blancpain)의 시그니처 컬렉션, 빌레레(Villeret)가 주(week), 요일, 그리고 라지 데이트 기능을 지닌 새로운 모델을 소개합니다.

빌레레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 타임피스는 컴플리케이션 기능뿐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블랑팡은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렉션인 빌레레 라인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아함을 부여하며 지속적이면서도 은은한 방식으로 이를 재해석해오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새로운 타임피스는 에나멜 다이얼, 더블 스텝 베젤 등을 지녀 시간을 초월하는 우아함이라는 컬렉션의 특징에 완벽히 부합할 뿐 아니라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의 아이코닉 워치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심미적 코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덱스와 블랑팡 로고는 화이트 다이얼 위에 에나멜로 페인팅 하였다. 이러한 장식 기술은 800도 이상 고온의 오븐에서 여러 번 구워서 완성된다.

블랑팡 매뉴팩처가 선보이는 가장 최신의 무브먼트는 2개의 창으로 이루어진 라지 데이트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워치메이킹의 기나긴 전통과 조화를 이루듯 블루 스네이크 핸드를 통해 1년중 몇 주차인지를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이얼 디자인 상 시각적으로 균형미를 이루고 쉽게 읽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일을 표시하는 서브 다이얼은 9시 방향에 위치시켰다. 주(week)는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동될 때 날짜와 연동되어 함께 바뀐다. 1부터 53까지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달력의 표기 방식에 따라 1년이 53개의 주(week)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레드 골드로 만들어진 42mm 사이즈의 시계 케이스에는 블랑팡만의 특허받은 언더-러그 코렉터(under-lug corrector) 장치가 자리하고 있다. 이 장치는 특별한 도구 없이 손끝만으로 각종 기능을 세팅할 수 있도록 해준다. 11시 방향의 러그 뒤쪽 코렉터는 요일을, 1시 방향의 러그 뒤쪽 코렉터는 주(week)를 세팅할 때 사용된다. 라지 데이트는 크라운을 통해 세팅한다.

새로운 블랑팡의 타임피스는 무려 378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완전히 새로운 인하우스 오토매틱 칼리버 3738G2가 장착되어 있다. 3개의 메인스프링 배럴에 힘입어 8일에 이르는 긴 파워리저브가 가능하다. 가변 관성(variable-inertia)으로 오차 조절이 가능한 벨

런스 휠은 골드 레귤레이션 스크류와 실리콘 스파이럴이 사용된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졌다. 최근 시계 산업에 큰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소개되는 실리콘 스파이럴은 밀도가 낮아 가벼우며, 자성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충격에 강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재의 장점들은 밸런스 스프링이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무브먼트의 오차를 현격히 줄이고 시간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42mm 사이즈의 케이스는 레드 골드로 만들어졌으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의 투명한 케이스백은 허니콤(honeycomb)과 기요셰(guilloché), 두 가지 패턴으로 장식된 와인딩 로터를 비롯 정교한 피니싱으로 완성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워치메이킹의 혁신과 전통을 동시에 담아낸 이 새로운 워치는 엘리게이터 스트랩과 브레이슬릿 타입으로 모두 선보여진다.